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5일 웨이보 공개)

벌점(罰點)을 받고 벌금(罰金)을 내게 될까? (왕호응 씀)

이것은 역우(易友)가 나에게 물었던 사례(事例)이다. 요 이틀간 출장(出場)을 갔다가 실수(失手)로 신호위반(信號違反)을 하고 차선(車線)을 잘못 들었는데, 사진(寫眞)이 찍혔을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합산(合算)하여 벌점 9점에 벌금 400위안이 나올 것 같다.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기미일(己未日) 갑자시(甲子時) (순공(旬空): 자축(子丑))에, 이위화(離爲火)가 천화동인(天火同人)으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己未日 甲子時

八卦

離爲火(離火宮) 之 天火同人(離火宮)

應 孫壬戌 帳蓋天	勾 兄己巳 亡馬	世 伏 兄己巳 亡馬
財壬申 閏馬乙花劫	朱 孫己未 帳花鞍蓋	伏 孫己未 帳花鞍蓋
兄壬午 將害	青 財己酉 閏害鬼馬災	伏 財己酉 閏害鬼馬災
世 官己亥 花劫喜地	玄 官己亥 花劫喜地	應 伏 官己亥 花劫喜地
孫己丑空 帳天馬月	白 孫己丑空 帳天馬月	伏 孫己丑空 帳天馬月
父己卯 花將	蛇 父己卯 花將	伏 父己卯 花將

六沖卦

歸魂卦

空亡: 子丑

卦身: 兄巳

世身: 六爻

그 자신의 판단: 부모(父母)가 월합(月合)으로 득기(得氣)하였고, 일(日)과 동효(動爻)에 입묘(入墓)하니 불리(不利)할까 두렵고, 처재(妻財)가 일월(日月)이 생(生)하고 동효가 생하니 불리할까 두려워 벌점과 벌금은 면(免)하기 어렵다.

나의 판단: 자손(子孫)이 독발(獨發)하여 근심을 풀어주니, 벌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벌금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

과연, 그대로 응험(應驗)했다. 확실(確實)히 사진이 찍히지 않은 것이었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5일 웨이보 공개)

会不会扣分罚款？（王虎应写）

这是易友问过我的一个案例。这两天出差，不小心闯红灯，走错车道，估计要被拍照，加一起扣9分，罚款400元。于癸卯年壬戌月己未日甲子时（旬空：子丑），得离为火之天火同人。

勾陈 兄弟巳火‘世’
朱雀 子孙未土× 妻财申金
青龙 妻财酉金’
玄武 官鬼亥水‘应’
白虎 子孙丑土”
螣蛇 父母卯木’

他自己判断：父母月合得气，入墓在日与动爻，怕不利，妻财日月生、动爻生怕不利，扣分罚款难免。

我判断：子孙独发解忧，既不会扣分，也不会罚款。

果然，应验。应该是没有被拍摄到。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5일 웨이보 공개)

귀곡자(鬼谷子): 천하(天下)의 기국(棋局)

제35장 연국(燕國)의 종국(終局)

소진(蘇秦)이 연국(燕國)으로 돌아왔을 때, 제국(齊國)은 이미 군대(軍隊)를 물러 철수(撤收)하였다.

연국이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진국(秦國)이 배후(背後)에서 제국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었다.

장의(張儀)가 진혜문왕(秦惠文王)을 설득(說得)하여 제국을 공격(攻擊)하게 하니, 제국은 어쩔 수 없이 철군(撤軍)하여 본국(本國)을 방어(防禦)해야 했다.

그러나 연국은 이미 참혹(慘酷)하게 짓밟혀 형편(形便)없는 꼴이 되어 있었다.

소진은 계성(薊城)의 가도(街道)를 걸으며 불에 탄 가옥(房屋)들, 울부짖는 백성(百姓)들, 거두어주는 이 없는 시체(屍體)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왕궁(王宮)으로 들어가 연혜왕(燕惠王)을 알현(謁見)했다.

연혜왕은 대전(大殿)에 앉아 안색(顏色)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소진, 네가 돌아왔는가?”

소진이 무릎을 꿇었다.

“신(臣)이 죄(罪)를 지었사옵니다.”

연혜왕은 오랫동안 침묵(沈默)하다가 홀연(忽然)히 말했다. “소진, 과인(寡人)도 네가 진력(盡力)한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연국은 너 한 사람이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진이 머리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연혜왕이 말했다. “너는 가거라. 연국을 떠나거라. 과인은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소진은 멍해졌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겁게 세 번 절을 했다.

“신, 대왕(大王)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恩惠)에 감사(感謝)드립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선 뒤, 한 걸음 한 걸음 대전 밖으로 걸어 나갔다.

왕궁을 걸어 나가는 그 순간(瞬間), 그는 고개를 돌려 한 번 바라보았다.

그가 십여(十餘) 년간(年間) 머물렀던 왕궁이 석양(夕陽) 속에서 고요히 우뚝 솟아 있었다.

그는 홀연히 연소왕(燕昭王)이 임종(臨終) 직전(直前)에 남겼던 말이 상기(想起)되었다.

“선생(先生), 당신이 바로 과인이 기다려온 그 기회(機會)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군상(君上), 소신(小臣)이 대왕(大王)을 실망(失望)시켜 드렸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큰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第三十五章 燕国的结局

苏秦回到燕国时，齐国已经退兵了。

不是因为燕国打赢了，而是因为秦国在背后捅了齐国一刀——

张仪说服秦惠文王出兵攻打齐国，齐国不得不撤军回防。

可燕国已经被糟蹋得不成样子了。

苏秦走在薊城的街道上，看着那些被烧毁的房屋，那些哭泣的百姓，那些无人收敛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5일 웨이보 공개)

的尸体，心如刀绞。

他走进王宫，拜见燕惠王。

燕惠王坐在大殿上，脸色阴沉。

“苏秦，你回来了？”

苏秦跪了下来。

“臣有罪。”

燕惠王沉默了很久，忽然说：“苏秦，寡人知道你尽力了。可这燕国，不是你一个人能撑起来的。”

苏秦抬起头，看着他。

燕惠王说：“你走吧。离开燕国。寡人不想再看见你。”

苏秦愣住了。

他跪在那里，久久没有动。

终于，他重重地磕了三个头。

“臣，谢大王不杀之恩。”

他站起身，转身，一步一步走出大殿。

走出王宫的那一刻，他回头看了一眼。

那座他待了十几年的王宫，静静地矗立在夕阳中。

他忽然想起燕昭王临终前的那句话——

“先生，你就是寡人等来的那个机会。”

他苦笑。

君上，学生让您失望了。

他转身，大步离去。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5일 웨이보 공개)

점두촌(店頭村) 연자방아의 보은(報恩)

태원(太原) 점두촌은 깊은 산속에 숨겨진 옛 마을로, 마을 곳곳에서 오래된 연자방아를 흔히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 한 틀에는 연자방아가 은혜(恩惠)를 갚았다는 민간(民間) 전설(傳説)이 깃들여 있다.

전(傳)하는 바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마을에 자식(子息)도 없고 의지(意志)할 곳도 없는 한 외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집안이 몹시 가난했던 할머니는 오로지 연자방아로 쌀을 찧어 겨우 연명(延命)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성(天性)이 선량(善良)하여 매번(每番) 쌀을 찧을 때마다 곡식(穀食) 한 움큼씩을 남겨 지나가는 새나 떠돌이 동물(動物)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연자방아를 대할 때도 유별(有別)나게 아껴서, 매번 사용(使用)한 뒤에는 깨끗이 닦아내며 정성(精誠)스레 다루었다.

어느 해 추운 겨울, 큰 눈이 내려 산길이 막히자 할머니는 집안의 양식(糧食)이 떨어지고 말았다. 춥고 배고픈 와중에 병(病)까지 들어 온돌방 아랫목에 쓰러지니, 이 모진 고생(苦生)을 더는 버텨내기 힘든 지경(地境)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비몽사몽(非夢似夢) 간(間)에 마당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아 문을 열고 나가보니, 놀랍게도 연자방아 옆에 좁쌀 한 자루 가득 쌓여 있었고, 연자방아 스스로 서서히 돌아가며 이미 반(半) 자루의 고운 좁쌀을 찧어놓은 상태(狀態)였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연자방아가 자신(自身)의 선심(善心)에 감응(感應)하여 은혜(恩惠)를 갚으러 왔음을 알아차린 것이다. 이 곡식 덕분(德分)에 할머니는 혹독(酷毒)한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고, 몸도 점차(漸次) 회복(恢復)되었다. 소문(所聞)이 퍼지자 마을 백성(百姓)들은 모두 이 연자방아에 신령(神靈)한 기운(氣運)이 깃들여, 선한 마음을 가진 이를 따뜻하게 대할 줄 안다며 입을 모아 칭송(稱頌)했다.

이후(以後)로 마을 사람들은 연자방아를 각별(各別)히 아꼈으며, 다시는 함부로 훼손(毀損)하지 않았다. 집집마다 쌀을 찧을 때면 늘 곡식을 조금씩 남겨 이 선량한 마음을 이어 나갔다. 연자방아가 은혜를 갚은 이 이야기는 점두촌에 대대(代代)로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타인(他人)에게 선을 베풀고 만물(萬物)에는 영혼(靈魂)이 있음을 가르치는 민간의 아름다운 미담(美談)으로 남게 되었다.

店頭村石碾報恩

太原店頭村，是藏在深山的古村落，村里随处可见老石碾，其中最古老的一盘，藏着石碾报恩的民间传说。

相传很久以前，村里有位孤老婆婆，无儿无女，家境贫寒，全靠这盘石碾碾米度日。老婆婆心地善良，每次碾米都会留一把粮食，给路过的飞鸟和流浪的小动物，对待石碾也格外爱惜，每次用完都会擦拭干净，悉心呵护。

一年寒冬，大雪封山，老婆婆家中断粮，又冻又饿，病倒在炕头，眼看就要撑不下去。夜里，老婆婆迷迷糊糊中，听到院子里有响动，天亮出门一看，石碾旁竟堆着满满一袋小米，石碾自身还在缓缓转动，已经碾好了半袋细米。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5일 웨이보 공개)

老婆婆又惊又喜，知道是石碾感念她的善心，前来报恩。靠着这些米，老婆婆熬过了寒冬，身体也渐渐好转。消息传开，村民们都说，这盘石碾通了灵性，懂得善待善心之人。

从此，村里人格外爱护石碾，再也不随意损坏，家家户户碾米时，都会留一丝粮食，传承这份善心。石碾报恩的故事，也在店头村代代相传，成了教导村民与人为善、万物有灵的民间佳话。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5일 웨이보 공개)

《추명서(推命書)》10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열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门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间(约1818

年)刊行的首部系统译介中国四柱推命的专著，以徐升《渊海子平》为底本，采用和刻线装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献，同时因作者非专精命理，存在翻译精度与体系适配的历史局限。

学术脉络：江户中期中国四柱推命传入日本，櫻田虎门结合自身儒易与五行学积累，完成首部系统译介，首次将“断易”命名为“五行易”，为后续日本推命学发展奠定术语基础。

历史意义：是日本推命学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连载之十。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5일 웨이보 공개)



하늘을 향(向)해 기운(氣運)을 빌린다.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